장미반의

야호 시원한 여름

여름이 온 것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풀이 무럭무럭 자랐어요~", "오늘도 비가 내리는 장마에요!"
"장미꽃이랑 민들레꽃 같은 꽃들은 지고 풀이 많잖아요!"라며
바깥 놀이 시간에 달라진 계절의 변화를 찾고 관찰하며
친구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어요.

오늘의 여름 날씨는?

여름에는 덥고 장마철에
비가 내린다는 것을 알게
된 장미반은
여름 날씨를 신체로
표현해보기도 하고,
장미반이 직접 규칙을 정해
게임도 해보았어요

"비가 와서 토톡 소리가
나!", "나는 노랑 우산을
가져왔는데~" 하며,
비 오는 날을 물감으로
표현해 주어요.

색모래와 물감 등
다양한 미술재료로
시원한 바다를 꾸며본
후 장미반에 전시해요

우와, 우리 장미반 그림들이 모여 커다란 고래가 되었어~!

'우산을 씌워줄게~' 노래를 배운 장미반은
친구에게 우산 그림을 주고 받으며 노래를
흥얼거리고, '해바라기' 동화를 읽은 후,
해바라기 씨도 콕콕~!

여름 물건 '선글라스'를
쓰고 과학 원리도
알아보며 장미반은
여름을 보내당니다♥